

보성녹차·해남겨울배추·고흥유자·장흥표고버섯·진도홍주·담양죽세공품...

전남 지역적표시제 상품 인기 상종가

지역 특산물의 명성을 지리명칭으로 등록해 상표처럼 상당 수준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해주는 지리적 표시제의 인기가 상종가를 치고 있다.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한 등록이 추진되는가 하면 등록 건수도 2001년 1건에서 올 8월말 현재 39건으로 급속히 늘었고, 최근에는 공예품에 이르기까지 신청품목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보성녹차 전국 1호~전남 6개=국내 지리적 표시 1호는 지난 2002년 등록된 보성녹차다. 보성녹차의 경우 관광·음식료 등 1·2·3차 산업에 걸쳐 녹차산업의 지역 경제효과가 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성공을 거두며 지리적 표시제 정착의 선봉에 서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보성녹차 이외에도 고흥유자, 장흥표고버섯, 해남겨울배추를 등록을 마쳤고, 담양죽세공품과 진도홍주가 신청,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등 지리적표시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 급속 증가= 27일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제 신청건수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년 1건

보성녹차 경제효과 1조원

신청품목 다양화...관광객 유치 한몫

▲지리적표시제= 특정지역의 지리적 요인이 상품특성과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리적 표시제를 상표처럼 등록시켜 지역명 품으로 육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역의 특산물과 가공품을 보호하기 위해 걸 포장지에 생산지역을 표시해 품질을 보증한다. 유럽계

국가들의 주장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근거규정이 마련돼 일종의 지적재산권으로 국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해외에 지리적 표시 권리를 주장하려면 국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에 불과했으나 2004년 3건, 2005년 16건에 이어 올해들어 8월까지 이미 17건에 달했다.

보성녹차에 이어 2003년 하동녹차, 2004년 고흥유자, 장흥표고버섯, 홍천참옥수수, 강화썩, 양양송이, 산청곶감, 정안밤 등과 함께 축산물로는 처음 황산한우고기와 제주돼지고기가 등록을 마쳤다.

참외, 이천쌀, 철원쌀 등이 줄줄이 대열에 합류했다.

올 들어서는 고흥유자, 장흥표고버섯, 홍천참옥수수, 강화썩, 양양송이, 산청곶감, 정안밤 등과 함께 축산물로는 처음 황산한우고기와 제주돼지고기가 등록을 마쳤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가전업계 '소음과의 전쟁'

저소음 제품 잇따라 개발 출시

"소비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가전제품의 소음을 최대한 줄여라"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전업체들이 청소기와 냉장고, 세탁기를 비롯한 주요 가전제품의 소음을 최대한 줄인 제품들을 잇따라 개발, 출시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TV 시청이나 전화 통화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저소음을 갖춘 진공청소기 '스텔스'를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2003년 70dB 수준이던 청소기 소음을 지난해까지 7~8% 감소시킨 데 이어 이번 신제품은 11%의 소음을 추가로 줄였다.

삼성전자는 냉장고의 경우에도 저소음 모델은 소음을 20dB까지 줄였다.

LG전자도 소음과 소비전력을 줄인 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이며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가 지난 6월 출시한 '디오스' 양면형 냉장고는 한국 산업기술시험원의 소음 시험 결과, 동급 제품 대비 최저수준인 18.5dB로, 기존의 23dB보다 4.5dB 줄었다.

이밖에 일렉트로룩스코리아는 지난해 소음 78dB 수준의 진공청소기 '울트라 사일런서(Ultra Silencer)'를 내놓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68dB까지 낮은 '뉴 울트라 사일런서 2'종을 추가로 출시, 청소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한국 고교생 경제 이해력

미국·일본보다 낮은 점수"

'청소년 경제교육 어떻게...' 세미나

우리나라 고교생들은 미국과 일본의 고교생에 비해 경제이해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흥택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과 김진영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경제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실태에 관한 한·미·일 비교'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논문에서 한·미·일 3개국 고등학생들의 경제이해력 테스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고교생들은 평균 55.7점으로 61.2점을 기록한 미국과 57.3점의 일본 고교생에 비해 경제이해력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교육을 수강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과의 점수 격차는 한국에서는 수강한 학생이 3.0점, 일본은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 0.5점 높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미국은 수강한 학생이 16.7점 더 높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정몽구 현대차 회장

'주식부자 1위' 고수

롯데 신격호·GS 허창수 회장 '약진'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주요 그룹 총수 가운데 상장기업 주식부자 1위 자리를 고수한 가운데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과 GS그룹 허창수 회장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증권선물거래소가 26일 종가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중 상위 10개 그룹 총수의 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보유 주식수는 1억1천606만8천주로 작년 말보다 0.05% 늘었지만 전반적인 주가 하락으로 평가액은 6조7천130억원으로 4.69% 감소했다.

개인별로는 현대차그룹 정 회장의 경우 보유주식 평가액이 2조3천173억원으로 작년말에 비해 13.88% 감소했지만 여전히 수위를 차지했다.

삼성그룹 이근희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의 일부를 장학재단에 증여하면서 보유주식 평가액이 1조8천745억원으로 2.84% 줄었지만 2위 자리를 고수했다.

GS그룹 허 회장은 보유 주식의 주가 상승으로 24.34% 늘어난 5천756억원의 평가액을 기록, 5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글루코사민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17개 통신판매업자에 중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인 글루코사민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광고로 한 17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행위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통신판매업자는 롯데닷컴(광고매체 롯데닷컴), 농수산물쇼핑(농수산물쇼핑), 팜스빌(인터넷파크, 제로마켓), 케어볼(제로마켓), 로즈이샵(제로마켓), 산지마을(다음온넷), 거성실업(인터넷파크), 서진하이텍(옥션), 신세계I&C(신세계몰), GS홈쇼핑(GS이샵), 아이즈버전(옥션), KE정보기술(옥션), TV홈쇼핑(인터넷파크), 이즈마인(제로마켓), 홈쇼핑닷컴(인터넷파크), 사인상사(제로마켓), 삼성홈넷(다음온넷) 등이다.

이들이 허위·과장광고해 판매한 제품들은 씨스팜 글루코사민, 한미 글루코사민100, 일진 글루코사민, 한일 글루코사민100, 종근당 글루코사민100 등이다.

/연합뉴스

경상수지 또 적자

해외여행비 지출 급증...8월 5억1,000만달러

해외여행비 지출급증으로 서비스수지가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가 두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 8월경 경상수지 누적적자도 13억 달러를 넘어섰다.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버팀목이었던 상품수지 흑자폭마저 줄고 있어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달성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최근 유가하락과 반도체 가격상승 등을 들어 연간 경상수지가 40억달러 흑자달성을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27일 한은이 발표한 '8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 적자는 5억1천만달러를 기록, 7월 3억9천만달러 적자에 이어 두달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올 8월까지 누적적으로는 13억3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 9억4천만달러 적자를 낸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연합뉴스

이처럼 경상수지가 악화된 것은 8월 서비스수지 적자가 7월보다 3억4천만달러 늘어난 20억9천만달러로,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방학철과 새학을 맞아 해외여행 및 유학,연수관련 경비송금이 크게 늘고 특화권 등 사용자 지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서비스 적자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8월중 내국인 해외여행자수는 114만명으로 월 출국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반면 8월 상품수지는 15억7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에 비해 5천만달러 감소했다. 상품수지 흑자는 5월 28억2천만달러에서 6월 27억1천만달러를 기록하더니 7월 16억2천만달러로 급감한 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중기청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은 27일 양동복개상가에서 축세를 맞아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는 지방중소기업청 직원과 10여개 중소기업 지원 기관장들이 참여, 장바구니와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을 펼칠 것을 나눠주며 재래시장 이용을 호소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LG전자 공채 응시자 정보 유출

해킹 프로그램으로 입사지원서 열람

LG전자의 올해 하반기 정시채용 지원자들의 정보가 한 취업관련 인터넷 카페(동호회)를 통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LG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D포털사이트의 한 취업관련 카페에 올해 하반기 LG전자의 정시채용에 응시한 취업준비생들의 입사지원서 일부 내용이 열람할 수 있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이 게시

되었다.

이 해킹 프로그램은 지원자들의 학력과 자기소개서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인적사항 등 정보를 다운로드(내려받기)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카페의 한 회원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아무런 인증이 없어도 다른 응시생들의 입사지원서 등 그대로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올해 하반기 응시자뿐 아니라 지금까지 LG전자에 지원한 사람들

의 모든 자기소개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LG전자는 "올해 하반기 채용 응시자 2만2천명중 일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가 공개됐을 뿐 지원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 사항이 유출되지 않았다"며 "해킹 프로그램이 게시된 직후 발견해 자정개부서는 조치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차단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광성유리공업	경리 및 사무관리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9/28	062-942-2285
취리토토닉스	[재무/회계, 연구/개발]정규직 경력사원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9/28	062-600-0011
스텔스	SK텔레콤 미납 고객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8	062-351-6050
STSC커뮤니케이션	[광주]삼성생명 콜센터 상담전문인력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9	062-600-0802
비로콜	[관리]팀장/고객상담/이르비이티 채용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9/29	062-369-1221
매일식품	사무관리 여사원 및 영업과정(서물)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9/30	061-752-3331
재능교육광주	[방문교사/관리사]담당/재능선생님 채용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30	062-601-7132
에스지뷰처	[주5일제]관리부/교육지원부/사업부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2	062-234-8526
현보하이텍	품질관리업무 신규인력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2	063-532-3607
국도정보기술	총무사무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0/04	062-430-0099
인인텔레서비스	LG텔레콤 고객센터 정규직 상담사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04	062-601-7203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CGI 전문인력양성 운영지원(직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0/04	062-654-3623
부림	A/S물품정리 포장업무/LED 조립 업무 생산직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0/05	062-953-6462
대명하이텍	자동차이사원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10/09	062-953-6444

<광주접근로 512-6210 제공>

"중소 투자세액공제 2009년까지 연장"

중기청, 조세감면제 개정안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할 경우 이 금액의 3%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2009년까지 연장돼 실시된다.

중기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 조세감면제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로 끝나는 20여건의 감세제도 중 창업, 성장, 구조조정과 사업전환 등 단계별 세제지원 제도(12건)는 계속 유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는 확대(5건)하거나 신설(3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제도 중 ▲창업초기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불혹 맞은 애경 트리오

국내 최장수 주방세제로 꼽히는 애경 트리오가 불혹(不惑)을 맞았다. 출시된 지 벌써 40년이 된 것이다.

트ριο는 1966년 12월 처음 선보였다. 이후 트ριο는 피부 보호 기능을 첨가하고 기름기 제거력을 강화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며 진화해 왔다.

'로얄트리오'(1983년), '레몬트리오'(1984년), '그린트리오', '솔라트리오'

(1990년), '바이오트리오'(1991년), '뉴 트리오'(1992년), '트리오후레쉬'(1994년), '골드트리오'(1996년), '파워트리오'(1998년) 등으로 이름을 조금씩 바꾸기는 했지만, '트리오'라는 브랜드는 그대로 유지하며 전통을 지켰다.

트ριο는 벌써 40주년을 맞아 또 다시 변신을 시도했다. '뉴 파워트리오'가 그것. 고세정 성분과 다중 계면활성제 시스템을 보강해 유성오염 제거력을 한층 높임으로써 적은 양으로도 많은 식기를 닦을 수 있다.

/연합뉴스